

뉴스홈 | 최신기사

종가 잉글랜드·아트사커 프랑스도 못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송고시간 | 2022-02-02 00:56

배진남 기자
기자 페이지

‘22회 개근’ 브라질부터 독일·이탈리아·아르헨티나 이어 한국이 6번째
아시아에서는 최다 연속 출전...일본이 7회 연속 본선행 도전



축구대표팀,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 확정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환호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한국 축구가 '종가' 잉글랜드도, '아트사커' 프랑스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10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처음 출전했던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21회째였던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월드컵 본선을 한 번이라도 뛰어본 나라는 210개 FIFA 회원국 중 3분의 1 정도인 78개국에 불과하다. 올해는 카타르가 개최국 자격으로 월드컵 본선에 데뷔한다.



두 자릿수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일 정도로 더욱 대단한 성과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장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복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벤투호,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환호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대륙별로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역대 최다인 다섯 번이나 정상에 오른 '삼바축구' 브라질이 1930년 열린 제1회 우루과이 대회부터 올해 카타르 대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다.

4회 우승국인 '전차군단' 독일(옛 서독 포함)이 브라질에 이은 2위다. 1954년 스위스 대회부터 올해 카타르 대회까지 18회 연속(통산 20회) 본선에 출전한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2002년 6월 22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8강전 한국-스페인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4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뻐하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시 네 차례 챔피언에 오른 이탈리아가 14회(1962-2014년·통산 18회, 2022년 카타르 대회 플레이오프 진출),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가 13회(1974-2022년·통산 18회), '무적함대' 스페인이 12회(1978-2022년·통산 16회) 연속 출전으로 뒤를 잇는다.

이들 다섯 나라는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세계축구의 강호들이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4개국은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가는 중이기도 하다.



달인을 위한 온종일 마술, 빛의 예술
LOTTE CASTLE
www.lottecastle.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1986년 멕시코월드컵 영웅들

1986년 멕시코월드컵 한국축구대표팀. 앞줄 왼쪽에서 정용환, 강득수, 정종수, 김평석, 조광래, 박경훈, 박창선, 김삼수, 이태호, 조병득. 뒷줄 왼쪽부터 유병욱, 허정무, 김중부, 김주성, 조병득, 김용세, 최순호, 조영중, 노수진, 조병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5개국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다.

한국은 1986년부터 3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 나선다.

통산 16회씩으로 우리나라보다 본선 경험이 풍부한 잉글랜드(1998~2022년)와 2018년 러시아 대회 우승국 프랑스(1998~2022년)도 연속 출전에서는 7회가 최다 기록이다.

2018년 대회까지 통산 16회 본선에 오른 멕시코도 7회 연속(1994년~) 출전이 최다이며 이 기록을 카타르 대회에서 늘려가려는 중이다.

통산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미국도 7회 연속(1990~2014년) 본선에 참가한 바 있다.



2018년 러시아대회에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성공했던 한국 대표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 FIFA 랭킹이 33위다.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중에서도 이란(21위), 일본(26위)에 이어 3위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에 있어서는 통산 횟수나 연속 횟수 모두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이다.

尹당선안 安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 마스크는 '유지'

검수완박에 청문장국 '한동훈 블랙홀'까지... 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점사회의... '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 4%대 인플레이션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26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9
-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 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0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 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40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 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콩 →



인사하는 벤투와 김민재

(두바이=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벤투 감독과 김민재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22.2.2 yatoya@yna.co.kr

카타르 대회 최종예선 B조에서 경쟁 중인 일본이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 처음 본선에 출전한 뒤 2018년 대회까지 6회 연속 본선에 올랐다.

한국에 앞서 카타르행을 확정된 이란은 3회 연속(2014-2022년·통산 6회) 본선에 나선다.

호주가 5회 연속(2006년-) 및 통산 여섯 번째 본선 진출에 도전 중이다.

hosu1@yna.co.kr

🔗 관련기사

'김진수-권창훈 골' 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종합)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태극전사 땀방울로 이룬 카타르행

'골 넣는 수비수' 김진수, 3년 만에 두바이서 벤투호 승리 견인

'캠퍼' 손흥민의 세 번째 월드컵...브라질-러시아의 눈물 자울까

'이제는 본선이다'...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

'3년 5개월' 최장수 벤투의 독심, 태극전사 맞출듯 압하다

늘 험난한 '월드컵 본선 가는 길'...카타르도 쉽지않은 길이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2 00:56 송고

#월드컵 #본선 #연속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토론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간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확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생활유무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사관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